

buddhanews.com

만 발자국 뛰는 거보다 한생각 하는 게 더 빠르다

25면에서 계속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놓고 가는 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가니까 자기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지 나라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자기 혼자 가 없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바깥으로 사는 거나 안으로 사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그 모든 생명들이 누구니까, 그게? 자기 몸뚱이 안의 자기 생명들이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혼자 만나면 겁니까, 어디?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그냥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는 거죠. 그러나 혼자 만났다고는 할 수 없고, 혼자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똥 똥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잔다고 할 수도 없고, 매사 게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생각, 자기가 산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남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인데, 하물며 이 우주 천하가 다 더불어 같이 살지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으라고 놓으라고 하니, 놓기는커녕 놓는 것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을 찾으니까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부르는데, 진정으로 말없이 똥신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주인공! 주인공!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 참!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름을 찾지 말고 형상을 찾지 마라. 이름도 형상도 내 이름 내 형상이다.'라고요.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 하죠? 그거를 잘 생각해 새겨 보세요. 저 형상은 바로 자기 형상이요, 저 마음은 자기 마음이고, 생명도 자기 생명이고,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이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오면 같이 하나로 몰아서 놓고 내가 예배 올리고, 나갈 때는 같이 몰아서 안고 예배 올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이죠. 이리로 가도 둘이 아니고,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잘 생각해서 우리가 기쁘고... 요즘 이틀도 알 수 없으리만큼 병 증세가 많이 나오는데, 병 증세뿐만 아니죠. 가혹한 악행이나 풍기가 문란하고 옹졸한 뭐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능통하게 살 거를,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정신계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한생각에 만 리를 뛸 수 있는데 이 몸으로 한 발짝을 떼어 놓는 게 그게 뛰는 겁니까? 만 발자국을 뛰는 거보다 한생각 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깁니다. 무(無)의 세계, 즉 정신 세계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니 그렇지, 느껴 보세요!

이렇게 가까워요. 스위치를 누르기 이전에 불이 들어오기 이전이고,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불 때는 불이 들어온 현실세계예요. 그렇게 빠른 세상을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세계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악행이나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 생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한마디만 더 하죠. 그리고 질문받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이가 적을 때 얘깁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 사는 거를, 그때도 그렇게 지켜 보려고 지켜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고생을

을 아니 갖다 쓴 게 없어요. 행전을 각반으로 썼고, 우리 그때의 도포를 하오리로 변경해서 썼고, 우리 오조가사를 사무라이 총반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네 발우공양을 가져다가 자기들 공기밥으로 변경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충실히 받아들여가게 된 것은 사명 대사나 서산 대사의 그 묘한 광대무변한 법을 보고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주 그때서부터 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정신력이 투철한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똥을 하기 이전에 내 집을 제대로 간수 해야죠. 지금 무슨 병, 무슨 병이 들었는지, 나는 누구한테 당했는지 이런 소리 하기 이전에, 내 집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다지고 또 다지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제(五戒)를 저네요. '술 아주 먹지 마라, 도독질 아주 하지 마라.' 이런 것 없었죠. 왜 그렇게 바꿨느냐 하면, 술을 먹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내가 많이 먹어서 내 몸을, 여러 생명들이 사는 집을 망가뜨리지 말고 적당하게 먹어야 약주가 되지, 만약에 적당치 못하다면 망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도 해로워서 결국은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가정까지 파괴가 돼요.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 이렇게 나쁜 일이 어딴 겁니까?

'도독질을 하지 마라.'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좀 여유가 있는 물건을 내가 댤 사람에게 줘

구입! 입으로 짓고 입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 아니라 하는 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공한 자체도 공했으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마저도 공했기 때문에 답답한 것마저도 놓으면 아주 편안해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이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일은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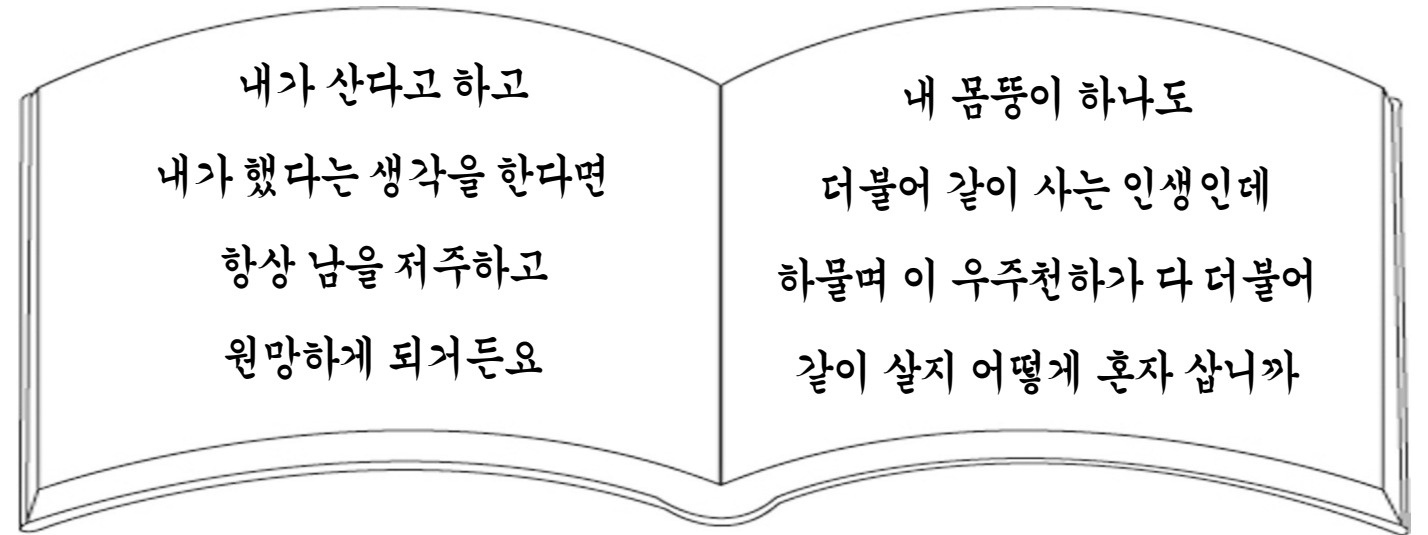
어떤 분이 오셔서 '은행에서 차압을 당해서 이제는 울짜없이 다 뺏기게 됐으니 어떻게 하죠? 이젠 애들하고 거리로 나왔게 됐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깃속에서 대고 얘기해 줘요. '당신만 알고, 당신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 사람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그 입자가 나가는 걸 보살이라고 하죠.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 한생각에 보살 천백억이 나가서 응신(應身)이 돼 주시니라, 이렇게 그 거를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하러니까 부처님 원자 안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제각기 다 자기 소임을 해 준단 얘깁니다. 그걸 거지로써 생각을 해선 안 돼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계로 들어가니까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되죠. 심성을 꼭 놓아야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중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심성과학이 어떤 거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병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것도 이 모두가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 집을 지키려면 주인을 뉘야 내 집을 지키죠. 집을 비우고서 어디 나가려면 집 지키는 사람을 꼭 하나라도 놔두고 가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또 '주인공! 너 집 좀 지켜 줘.' 하곤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잊기는 허허허... 그랬더니 고스란히 그냥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이 개개인이 집 한 몸의 집인데, 집주인이 있어야 세균성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이거를 다 막고 대치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없다면 대치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반드시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흡수돼서 자기 나무에게 주어진다 그 믿음을 진실히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죠. 질문을 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2월 4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못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침입한 것은 잘못됐지만 뭐를 하나 갖다 줬다면, 하다 못해 성냥을 하나 갖다 줘도 그냥 빈 집시를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걸 본 거예요. 빈 집시 주는 법이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반드시 지켜서, 위로 충성할 줄도 알고 믿으로 다스릴 줄도 안다 이겁니다. 아, 그 정신력이라는 것은 투철해요. 아주! 남한테 미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분수를 지키지 않으니,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아주 충실히 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만쯤밖에 못되니까 여기 이 자리의 소임을 맡은 거다. 또 나보다 훌륭하거나 뒷자리를 맡은 거다.' 그렇게 하는 거를 볼 때... 또 요만한 애들도 장난감을 하나 갖다 하면 그 이틀날은 반드시 다른 장난감을 갖다 줘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무심구나! 아주 철저하게 무심하게 다루어졌구나! 아,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아하, 이 법칙이 네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나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부처님의 법

부터 잘 간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부터 내가 자유스럽게 다루 놔야 그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 정신을 뺏기지 않게 돼서 내 몸이 나 빠지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내 가정을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를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 안의 국민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 껍데기가 돼 가지고도 빈 껍데기를 또 잡는다고 애쓰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루바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때 보면 어느 신도는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나는 빙긋이 웃죠. 왜냐하면 '허, 저 말 없이 하는 거에 맞을 들었구나!' 하고요. 이 부처님 법은 말 없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전달이 되죠. 일체 만물이 다요. 말로 하면 말이 늘어 가서 병변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말 없이 말을 한다면 늘어 가지도 줄어 가지도 없어서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이 도리를 하루속히 체험하고 풀어 나가려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아주 진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아, 네 나무는 네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나무가 댤 나무에서 찾으면 되느냐?'고 했습니다.

도 도독질입니다. 그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줘도 그게 도독질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데, 내가 남을 줘도 도독질인데, 이거는 도독질이지만 도독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도독질 아닌 도독질이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도리기 때문에 도독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가친척들이 있는데 말을 잘해서 이쪽 집 거를 저쪽에다가 갖다 주는 수도 있죠. 그거는 말 도독질을 해서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말 도독질이라 하더라도 둘이 아닌 사랑으로써 맺어지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 도독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말을 잘못해서 연결이 돼서 싸움이 나게 하지 말고, 싸움이 나서 외절 한 사람도 이쪽에서 말을 할 때는 저쪽 말을 잘 해 주고, 저쪽에 말을 할 때는 이쪽 말을 잘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다 잘못되지 않는 것인데, 외려 이쪽 말을 저쪽에다가 안 좋게 해 주고, 저쪽에 다 이쪽을 안 좋게 말을 해 주고 이러니까, 점점 점점 더 응어리가 커져서 죄업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죠. 그제 말로 해서 짓는 구업(口業)이죠.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특별기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